

같이해서 THE 가치 있는 자원봉사 in 중랑

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중랑人

2022년에도 중랑구민의 따뜻한 이웃 사랑과 나눔이 있어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유구한 역사, 아름다운 자연의 중랑을 나눔으로 더 따뜻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업사이클링 방식



청소년

오늘도 나는 “폼생폼사(폼나는 인생 폼나는 봉사)”

업사이클링 봉사로 환경보호와 나눔을 동시에

신내데시앙아파트 자원봉사캠프에서는 신내초, 신현중, 원목중, 이화여고 학생들과 「폼생폼사」 업사이클링(up-cycling) 봉사활동을 펼쳐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청소년들이 버려진 양말, 의류를 활용하여 폭신하고 따뜻한 방석과 쿠션을 직접 제작하고 독거 어르신들께 전달하였습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재학생 정소은님

내가 만든 양말목 방석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됐다니!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봉사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미있는 나눔과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제가 만든 양말목 방석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전했기를 소망합니다.

대학생

한방진료 봉사단 [언재호야, 청록회]

어르신들 건강 저희가 책임질게요!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한방진료 봉사는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랑구 대표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가천대 「언재호야」 봉사단과 경희대 「청록회」 봉사단이 참여해 어르신들께 침, 부항, 한약 처방 등 종합적인 한방진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시 시작된 사랑의 한방진료



가천대 언재호야 봉사단장 인소영님

가천대 봉사동아리 언재호야는 중랑구청에서 2003년부터 20년째, 매년 방학마다 중랑구민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봉사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중단됐던 봉사가 재개된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새내기였던 제가 단장이 되어 하는 첫 봉사라 떨리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항상 찾아와주시고 고맙다고 말씀해주시는 중랑구민분들 덕분에 봉사를 잘 마쳤습니다.

기업

기업봉사단 [기린(企隣) 마을 만들기]

기업과 이웃의 아름다운 동행

중랑구 내에는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틈틈이 시간을 내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11개의 기업봉사단이 있습니다. 이웃의 생활개선 서비스의 일환으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포장이사, 해충 방역 등을 도우며 꾸준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청록회 봉사단장 오윤성님

경희대와 중랑구가 함께하는 뜻깊은 한방의료봉사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랑구에서도 한방의료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수를 거듭할수록 더 나은 봉사를 해야한다는 책임감도 커지며, 봉사지를 찾아주시는 어르신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